

2020년 4월 8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경제 재개 기대 불구 국제유가 급락은 부담 EIA, "OPEC+ 협상 기대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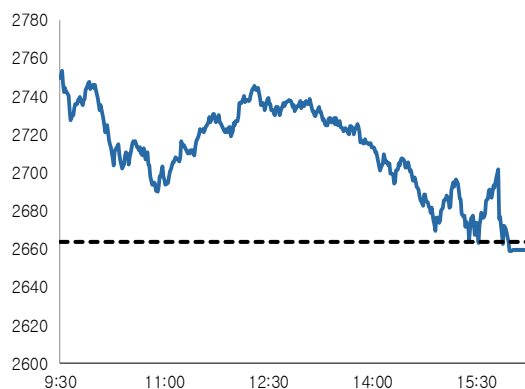
미 증시 변화 요인: 경제 재개 기대, 국제유가 급락

미 증시는 코로나 확진자 발생 정점 기대에 힘입어 상승 출발. 특히 이탈리아에 이어 미국도 경제의 재 가동 가능성을 언급하자 한때 3% 이상 급등했으며, 화재성 재료가 유입된 일부 에너지, 금융업종이 상승 주도. 그러나 경기 침체 우려가 여전히 발목을 잡은 가운데 국제유가가 OPEC+ 협상에 대한 불안으로 급락하자 상승분 반납하며 결국 하락 마감 (다우 -0.12%, 나스닥 -0.33%, S&P500 -0.16%, 러셀 2000 +0.03%)

이탈리아에서는 5 월 4 일 이후 멈췄던 경제가 점진적으로 재개 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짐. 비록 빠르지는 않지만 경제의 재개가 시작 될 수 있다는 점이 투자심리 개선에 도움. 이런 가운데 트럼프가 4 월 30 일 이후 미국의 경제가 재개 될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므누신 미 재무장관 또한 일부 사업체의 재개를 고려중이라고 주장. 더불어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 위원장도 4~8 주 후 재개 될 것이라고 언급해 글로벌 각국은 멈춰진 경제를 5 월에는 재개 할 것을 고려 중임을 시사. 이는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본격적으로 회복 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 위험자산 선호심리를 높임. 한편, 맥코넬 미 상원 원내 대표는 2 조 2 천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 중 3,500 억 달러 규모의 소기업 대상 대출인 급여 보상 프로그램의 규모를 2000~2500 억 달러 추가할 수 있으며 목요일 표결에 나설 것이라고 발표한 점도 긍정적

반면, 고용불안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는 등 경기 침체 가능성, 저점 대비 20% 넘게 급등한 데 따른 차익 실현 매물 출회 등은 장중 상승 분 반납 요인. 또한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정점 가능성은 높지만 사망자 급증이 시작될 조짐이 보인 점도 부정적. 실제 이날 장 후반 뉴욕은 사망자가 하루 최다를 기록했다고 발표. 더불어 국제유가가 미 에너지 정보청(EIA)이 "생산 수준을 논의하기 위한 OPEC+ 긴급 회의에 대한 최근 소식에도 불구하고 감산 합의를 기대하지 않는다" 라고 주장한 이후 급락하자 주가 지수는 상승분 대부분 반납. 더 나아가 EIA 가 단기 에너지 전망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공급 감소를 주장 했으나, 코로나로 인한 수요 감소가 더 크다며 여전히 공급 과잉 우려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국제유가 하락 요인.

S&P500 일종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종류(%)	Close	D-1	지수종류(%)	Close	D-1
KOSPI	1,823.60	+1.77	홍콩恒生	24,253.29	+2.12
KOSDAQ	606.90	+1.62	영국	5,704.45	+2.19
DOW	22,653.86	-0.12	독일	10,356.70	+2.79
NASDAQ	7,887.26	-0.33	프랑스	4,438.27	+2.12
S&P 500	2,659.41	-0.16	스페인	7,002.00	+2.30
상하이종합	2,820.76	+2.05	그리스	607.73	+3.63
일본	18,950.18	+2.01	이탈리아	17,411.72	+2.19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사,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여행, 에너지, 금융 강세 Vs. 기술주 부진

엑손모빌(+1.90%)은 지출을 30% 감소 시켜 배당을 유지 할 것이라고 발표하자 장중 7% 넘게 급등 하기도 했다. 그러나 오후 들어 국제유가가 급락하자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다. 장 초반 엑손 모빌의 힘으로 셰브론(+0.66%), 코노코필립스(+0.66%) 등 대부분의 에너지 업종이 강세를 보였으나 장 후반 상승분을 반납했다. JP모건(+1.32%), BOA(+3.51%) 등 금융주도 장 초반 금리 상승과 경제 재개 기대 가 높아지자 상승 했으나 오후 들어 국제유가 하락 여파로 상승분을 일부 반납했다.

MGM(+5.58%), 카니발(+10.68%), 원리조트(+7.26%) 등 리조트, 카지노 업종과 부킹닷컴(+1.45%) 등 여행, 사우스웨스트항공(+6.74%) 등 항공, 메이시스(+4.97%) 등 백화점, GM(+8.95%), 포드 (+3.97%) 등 자동차 업종은 경제재개 기대속 강세를 보였다. 반면, 시스코 시스템즈(-1.91%), 줌 비 디오(-7.48%) 등 온라인 회의 제공 업체, 길러드사이언스(-3.94%), 화이자(-2.78%) 등 제약, 바이 오, 애플(-1.16%), MS(-1.08%) 등 그동안 낙폭이 제한되거나 상승을 이끌었던 종목은 부진했다.

주요 ETF

ETF 종류	동락률	ETF 종류	동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3.10%	대형 가치주 ETF(IVE)	+0.38%
에너지섹터 ETF(OIH)	+3.45%	중형 가치주 ETF(IWS)	+1.44%
소매업체 ETF(XRT)	+2.62%	소형 가치주 ETF(IWN)	+0.76%
금융섹터 ETF(XLF)	+1.00%	대형 성장주 ETF(VUG)	-0.24%
기술섹터 ETF(XLK)	-0.90%	중형 성장주 ETF(IWP)	+0.24%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0.60%	소형 성장주 ETF(IWO)	-0.17%
인터넷업체 ETF(FDN)	-0.06%	배당주 ETF(DVY)	+0.97%
리츠업체 ETF(XLRE)	+0.03%	신흥국 고배당 ETF(DEM)	-0.30%
주택건설업체 ETF(XHB)	+2.55%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88%
바이오섹터 ETF(IBB)	-1.94%	미국 국채 ETF(IEF)	-0.44%
헬스케어 ETF(XLV)	-0.82%	하이일드 ETF(JNK)	+0.34%
곡물 ETF(DBA)	+1.83%	물가연동채 ETF(TIP)	-0.07%
반도체 ETF(SMH)	-0.31%	Long/short ETF(BTAL)	-0.85%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245.90	+2.00%	+10.07%	-8.03%
소재	295.20	+2.42%	+4.23%	-6.57%
산업재	508.15	-0.19%	+1.81%	-12.57%
경기소비재	821.32	+1.23%	+3.56%	-8.54%
필수소비재	584.27	-1.20%	+4.27%	-6.08%
헬스케어	1,055.49	-0.93%	+2.19%	-4.70%
금융	353.56	+0.94%	+2.18%	-11.47%
IT	1,458.93	-1.06%	+3.15%	-4.97%
커뮤니케이션	154.51	+0.67%	+2.77%	-6.71%
유틸리티	280.17	-1.21%	-0.57%	-13.23%
부동산	195.25	+0.12%	+1.35%	-16.03%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조정 예상

MSCI 한국 지수 ETF 는 1.10% MSCI 신흥 지수 ETF 는 0.52% 상승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213.90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8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증시가 경제 재개 기대 속 한 때 3% 넘게 급등하기도 했으나 한국 증시에는 전일 선반영이 되었다는 점에서 영향은 제한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국제유가가 EIA 의 OPEC+ 회담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으로 급락한 점은 한국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상승에 따른 차익 매물 출회되며 미 증시가 하락한 점은 부담이다.

반면, ECB 가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담보 조건을 완화하며 남유럽 재정 위기 가능성을 완화 시킨 점, 글로벌 각국의 경제 재개 기대가 높아지며 NDF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원화가 달러화 대비 강세를 보인 점 등은 긍정적이다. 이는 외국인의 수급에 우호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미 증시에서는 그동안 상승을 이끌었던 일부 기술주가 부진했으나 엑손모빌 등은 화재성 재료에 의해 강세를 보였고, 그동안 코로나 공포로 하락했던 리조트, 여행 업종 또한 상승을 했다는 점은 한국 증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결국 이러한 미 증시의 특징을 감안 한국 증시는 조정이 예상되나 일부 개별 종목의 경우 강세를 보이는 종목 장세 가능성을 높인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소기업 낙관지수 부진

미국 2 월 채용공고는 전월(701.2 만건) 보다 감소한 688.2 만건을 기록했으나, 예상(663.8 만건) 보다는 양호했다. 그러나 이는 코로나 급증 이전 수치라는 점에서 시장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3 월 미국 소기업 낙관지수는 전월(104.5) 보다 둔화된 96.4 로 발표되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제유가 급락

국제유가는 EIA 가 OPEC+ 회담에 대해 부정적으로 발표하자 급락했다. 더 나아가 이번에 공급 감소 합의에 성공한다고 해도 수요 둔화 폭이 더 크기 때문에 영향은 크지 않다는 점이 부각된 점도 부정적인 요인이었다. 이 영향으로 국제유가는 9.39% 급락하며 마감했다. 한편, EIA 가 단기 에너지 전망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수요와 공급이 감소되었다고 발표했다. 특히 미국 산유량은 올해 하루 1,176 만 배럴로 9.5%를 하향 조정했으나 영향은 제한 되었다.

달러화는 경제 재개 기대에도 불구하고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를 보였다. 유로화는 ECB 가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담보 조건을 완화하며 그리스 국채 매입을 시사하자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파운드화는 존슨 총리의 집중 치료 소식으로 전일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으나 이날은 되돌림이 유입되며 강세로 전환했다. 엔화는 아베가 비상사태 선포하고 대규모 유동성 공급을 발표하자 달러 대비 소폭 강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글로벌 각국의 경제 재개 기대에 힘입어 상승했다. 그러나 오후 들어 국제유가가 급락하고 주가지수 또한 상승분을 반납하고 하락하자 금리 상승폭은 축소 되었다. 한편, 10 년물 국채입찰에서 응찰율은 12 개월 평균(2.42 배) 보다 소폭 증가한 2.43 배를 기록해 영향은 크지 않았다.

금은 코로나 확진자 정점 기대가 확산되자 하락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약세에 힘입어 상승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23.63	-9.39	+15.38	Dollar Index	99.929	-0.75	+0.89
브렌트유	31.87	-3.57	+20.95	EUR/USD	1.0895	+0.95	-1.23
금	1,683.70	-0.60	+5.46	USD/JPY	108.82	-0.37	+1.19
은	15.480	+2.05	+9.35	GBP/USD	1.2342	+0.91	-0.63
알루미늄	1,477.50	+0.37	-3.18	USD/CHF	0.9694	-0.96	+0.86
전기동	5,040.00	+3.19	+1.80	AUD/USD	0.6173	+1.40	+0.69
아연	1,924.00	+1.02	+0.97	USD/CAD	1.3997	-0.81	-0.46
옥수수	331.50	+1.14	-2.71	USD/BRL	5.2309	-0.97	+0.49
밀	549.25	-1.17	-3.43	USD/CNH	7.0645	-0.60	-0.41
대두	854.75	-0.09	-3.53	USD/KRW	1221.20	-0.66	+0.31
커피	121.05	+2.67	+0.58	USD/KRW NDF1M	1213.90	-0.82	-0.33

10 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 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0.733	+6.29	+6.32	스페인	0.813	+9.60	+14.10
한국	1.580	+2.90	+2.80	포르투갈	0.941	+8.20	+8.10
일본	0.019	-0.40	-0.30	그리스	1.809	-6.70	+18.10
독일	-0.309	+11.60	+16.20	이탈리아	1.613	+12.60	+9.40